

1.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?

- ①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② 외국보험회사와 장기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③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둘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④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,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

2. 보험계약자 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에 대해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의 수와 그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총수 또는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의 절차가 끝나면 7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② 보험계약자 총회는 보험계약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- ③ 보험계약자 총회는 정관의 변경이나 그 밖에 상호회사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.
- ④ 보험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은 주식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뿐, 보험계약자 총회에서는 결의할 수 없다.

3. 보험업법상 법인보험중개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통신판매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다단계판매업
- ③ 대부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대부중개업

4.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·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?

- ①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
- ②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- ③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
- ④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

5. 보험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“외국보험회사”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.
- ② “보험대리점”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.

③ “보험설계사”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.

④ “보험중개사”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.

6.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임면하게 된다.
- ② 준법감시인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이유로 인사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③ 준법감시인은 보험회사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준법감시인은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7.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- ①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만큼 변동된 경우
- ② 상호나 명칭을 변경한 경우
- ③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
- ④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

8.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해산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회사의 합병
- ② 이사회 의결
- ③ 해산을 명하는 재판
- ④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

9. 보험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험중개사는 그 법적 형태에 따라 개인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중개사로 구분한다.
- ② 보험중개사는 취급하는 종목에 따라 생명보험중개사, 손해보험중개사,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한다.
-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중개사가 될 수 없다.
- ④ 생명보험중개사는 생명보험, 연금보험, 퇴직보험 등을 취급할 수 있다.

10. 보험업법상 적합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 질문을 통하여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, 재산상황, 보험가입 목적 등 일정한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.
- ② 보험중개사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,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을 권유 하여서는 안 된다.
- ③ 변액보험은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 상품이다.
- ④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면 보험중개사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.

11. 다음 괄호 안에 들어 갈 말은?

상법상 보험증권 기재사항은 ( )의 법정기재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각 보험종목별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.

- ① 손해보험증권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화재보험증권
- ③ 해상보험증권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인보험증권

12. 피보험자의 지위가 아닌 것은?

- ①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금청구권자
- ② 고지의무자
- ③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자
- ④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생명보험에서의 보험수익자

13.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험계약자가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.
- ②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 타인의 위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, 그 타인의 위임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도 없다.
- ④ 타인은 위임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.

14. 상법상 “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”에 가장 가까운 것은?

- ① 보험계리사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보험중개사
- ③ 손해사정사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보험설계사

15. 보험사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.

- ② 보험사고는 일정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것으로서 그 범위는 특정되어야 한다.
- ③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다.
- ④ 보험사고가 전쟁, 기타의 변란으로 생긴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.

16.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각각의 보험료는 별개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며, 그 각각의 보험료를 납부할 때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한 때 시효소멸한다.
-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- ③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 그 타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.
- ④ 판례는 최초보험료를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경우, 선일자 수표의 결제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.

17.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 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1월내에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18. 보험계약법상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보험료청구권은 2년,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3년이다.
- ② 보험금청구권은 3년, 보험료청구권과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2년이다.
- ③ 보험금청구권,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, 보험료청구권 모두 3년이다.
- ④ 보험금청구권,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, 보험료청구권 모두 2년이다.

19. 일반 소비자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약정으로 가능한 것은?

- ① 특별위험 보험료를 지급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중 특별위험이 소멸한 때에도 보험료가 변경될 수 없다는 약정
- ②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위반한 경우 3개월의 취소기간이 지난 후에는 설명하지 않은 약관조항도 그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다는 약정
- ③ 보험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에서 보험증권 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기간을 3주 이내로 제한하는 약정
- ④ 보험사고가 전쟁,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

20. 우리 상법 보험편에서 피보험이익의 효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?

- ① 손해보험의 보험자의 책임한도를 확정한다.
- ②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인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.
- ③ 동의주의와 함께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한 요건이다.
- ④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.

21. 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?

- ①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 할 수 있다.
- ②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 할 수 없다.
- ③ 보험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.
- ④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초과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하면 장래에는 유효하다.

22.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는?

- ①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의 양도
- ② 집합보험계약에서 일부 물건의 양도
- ③ 선박보험에서 선박의 양도
- ④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임원의 지위의 이전

23.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와 관계없는 것은?

- ① 보험의 목적의 전부 멸실
- ② 보험자에 의한 보험금액 전부 지급
- ③ 해상보험의 보험위부와 같이 피보험자가 청구
- ④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

24.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화재의 소방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해야 한다.
- ② 화재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책임을 진다.
- ③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화재보험증권에는 그 건물의 구조와 용도도 기재해야 한다.
- ④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.

25. 운송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운송물 보험의 경우 도착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, 기타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.
- ②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.
- ③ 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은 약정이 있어야 보험가액 중에 산입한다.
- ④ 보험사고가 수하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면책된다.

26.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?

- ① 보험자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확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한다.
- ② 재판으로 인해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채무가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은 법원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제3자에 대하여 변제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.
- ④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,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

27. 보증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증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.
- ②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가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.
- ③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.
- ④ 보증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의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.

28. 타인의 사망보험계약 체결시의 타인의 서면동의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묵시적 동의가 가능하며, 연속하는 유사한 성격의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포괄적 동의로 족하다.
- ② 피보험자가 서면동의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,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.
- ③ 기명날인 대신 청약서에 첨부할 타인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.
- ④ 15세 미만자가 사망보험가입시 서면동의 한 때에 의사능력을 갖추었다면 그 계약에 한하여 유효이다.

29. 생명보험의 경우에 보험수익자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.
-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한다.
-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.
- ④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.

30. 상해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타인의 상해보험에서는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중 피보험자의 주소, 성명 및 생년월일에 같음하여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할 수 있다.
- ②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.
- ③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
- ④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.

31. 다음 중 손실규모는 크나 손실빈도가 낮은 경우에 가장 적절한 위험관리기법은?

- ① 손신통제(loss control)
- ② 위험보유(risk retention)
- ③ 위험전가(risk transfer)
- ④ 위험회피(risk avoidance)

32. 다음 중 자동차의 에어백 설치, 선박의 구명보트 준비 등에 의한 위험관리기법은?

- ① 손실감소(loss reduction)
- ② 손실예방(loss prevention)

- ③ 위험회피(risk avoidance)
- ④ 위험전가(risk transfer)

33. 다음 보기 중 정태적 위험과 순수위험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?

가. 홍수, 화재 다. 태풍, 지진	나. 사망, 질병 라. 강도, 상해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- ① 가, 다
- ② 나, 라
- ③ 가, 나, 라
- ④ 가, 나, 다, 라

34. 다음 중 민영보험으로 부보하기 어려운 위험들만 열거한 것은?

- ① 투기적 위험, 동태적 위험, 근원적 위험
- ② 순수위험, 동태적 위험, 근원적 위험
- ③ 투기적 위험, 정태적 위험, 근원적 위험
- ④ 객관적 위험, 동태적 위험, 한정적 위험

35. 다음 중 보험가입 후 손실발생가능성에 대해 부주의 해지는 경향과 관계있는 것은?

- ① 물리적 위태(physical hazard)
- ② 도덕적 위태(moral hazard)
- ③ 정신적 위태(morale hazard)
- ④ 법률적 위태(legal hazard)

36. 다음 중 재무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물가상승 및 실업, 질병, 장수 등 미래 리스크에 대한 대비
- ②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의 흐름과 소비지출 흐름의 일치로 인한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극대화
- ③ 가계금융자산의 증가와 금융상품의 다양화 및 고령화 사회진입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대비
- ④ Life Cycle에 따른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특성에 알맞은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 구성

37. 우리나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 연금제도로 볼 수 없는 것은?

- ① 퇴직금제도
-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
- ③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
- ④ 개인형 퇴직연금제도

38.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아래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개인파산제도는 도저히 채무를 이행할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를 말한다.
- ②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없는 개인이 채무의 최대 80% ~ 90%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제도이다.
- ③ 개인워크아웃제도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대상 채무자들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.
- ④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채무자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.

39. 상속세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?

- ① 일괄공제금액은 2억원이며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한다.
- ② 순금융재산에 대한 최대 공제금액은 2,000만원이고 보험금도 순금융재산에 포함된다.
-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함께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.
- ④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명목최고세율은 50%로 동일하다.

40. 갑의 사망 당시 보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보험금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가?

-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: 을(갑의 아들)
- 피보험자 : 갑
- 사망보험금 : 4억원
- 보험료 납입 : 총납입보험료 1억원 가운데 을의 모친이 6천만원을 납부하고, 나머지 4천만원을 을이 자신의 급여에서 납부

- ① 1억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1억 6천
- ③ 2억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2억 4천